메트로 2013년 9월 4일 수요일

롯데 손아섭 "가을야구 하자"

데뷔 첫 월간 MVP

롯데 자이언츠 손아섭(25)이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월간 MVP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야구위원회는 3일 프로야구 출입 기자단 투표 결과 손아섭이 유효표 27표 중 11표(41%)를 획득해 10표(37%)를 얻은 봉중근(LG)을 제치고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8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손아섭은 8월 한 달 동안 21경기에 출장해 타율 0.451(82타수 37안타) 2홈런 15득점 15타점 출루율 0.516을 기록했다. 타율, 안타, 출루율 부문 월간 1위에 올랐다. 그는 또 한 달 동안 4할 타율을 유지하거나 월간 최고 타율을 기록한 타자에게 주는 'V푸드 월간 4할타자상'도 수상했다.

'공공의 적' 일본산 수산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서초구청 직원들이 굴비의 원산지 표시와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여행한류' 꿈꾸는 29세 여사장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여행에 인생 승부수… 여행업체 '플레이플래닛' 서선미 대표

창조경제, 청년 창업 등의 문구를 자주 접하지만 일자리 창업을 꿈꾸긴 어렵다. 하지만 여행 스타트업 업체인 '플레이플래닛'의 서선미(29) 대표는 좋아하는 일에서 아이디어를 찾아 추진하면 혼자서도 창업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다.

서 대표는 지난해 '현지인과 함께 여행한다'는 소셜트립(지역 여행) 개념을 도입한 플레이플래닛을 설립했다.

지역 여행은 여행이 보편화된 유럽 등지에선 이미 널리 자리 잡은 트렌드다. 동남아에 특화된 플레이플래닛의 경우 태국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전통 요리를 배우고 잘 알려지지 않은 필리핀 보홀섬에서 현지인들과 고대 동굴 탐험을 하는 식이다.

직원 수는 서 대표를 포함해 모두 6명. 이들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거주하는 현지인들로 서 대표와는 여행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서 대표는 세계 여행을 꿈꾸며 성공회대 입학 후 영어 전공을 택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여행비를 모아 방학 때마다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 졸업할 때쯤엔 여행한 국가가 동남아, 아시아, 유럽 등 15개국에 달했다.

창업 아이디어 역시 여행하면서 얻었다.

그는 "동남아의 경우 대표적인 관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동남아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다 현지 주민들과 여행객을 직접 매칭해서 관광 수익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 방식을 구상했다"고 전했다.

가령 여행객들의 현지 여행을 안내하는 호스트 중 필리핀의 '플레이보틀'은 현지 대학생들로 구성된 팀이다. 이들은 졸업 후 해외 근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에 도전했다. 필리핀식 청년 창업인 셈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공정여행'으로도 볼 수 있으나 플레이플래닛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사업 모델을 적용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의 오픈 플랫폼을 조성해 대외 홍보수단을 거의 갖지 못한 현지 군소 업체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전 세계 어디서나 클릭 한 번만으로 베테랑 배낭족만 할 법한 숨은 현지 여행 코스를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됐다. 아직 출발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플레이플래닛은 지난달 서울시 '공유기업' 인증을 받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비결은 무엇일까. 서 대표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의지를 다지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답했다. 그는 "주위의 반대 등으로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주위를 설득할 만큼 자신이 주변에 확신을 주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재용씨, 검찰 자진출석…아버지 추징금 자진납부할까

전재용씨가 지난달 ■일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인 없이 혼자 나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수사와 관련해 차남 재용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재용씨는 전씨 자녀(3남 1녀) 중 처음으로 소환됐으며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에 응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3일 오전 7시30분께 재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재용씨를 상대로 조세포탈 및 해외 부동산 소유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 출두는 재용씨 측이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들은 재용씨 측이 지난 2일 수사팀에 갑자기 연락해 3일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자진 출석'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변호인 없이 출석해 검찰에 협조하는 대신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서 선처를 받으려는 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부친의 미납 추징금을 자진해 내겠다는 협조 요청 차원의 방문이 아니겠느냐는 추정도 제기된다. /김유리기자 grass100@

뉴스 & 뉴스

항공기 이륙 직전 "내려주세요" 못하게 법제화

● 이륙 직전 항공기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승객을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이륙 직전 항공기에서 내릴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구분해 법제화하도록 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상 이유로 여행이 불가능하거나 가족이 사망·위독할 때 등 항공기에서 내릴 수 있도록 허용된 사항을 법으로 규제했다. /김유리기자

10~14세 '4대 강력범죄' 2년간 무려 626명 적발

● 지난 2년간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이른바 '4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들이 62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2년 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 중 살인은 없는 가운데 강도·강간·방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촉법소년은 2011년 322명, 2012년 304명으로 밝혀졌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도 58명, 강간 263명, 방화 205명으로 강간이 비율(42.0%)이 가장 높아 아동이 저지르는 성범죄 역시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여야 이석기 제포동의안 오늘 처리할 듯 3일 ■■역 광장에서 ■■■부산 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이석기 의원 등의 모습이 그려진 현수막에 페인트볼 총을 쏘고 있다 /연합뉴스

역외탈세 39명 세무조사

전두환 장남 재국씨·김우중 아들 선용씨 포함…우선 11명 714억 추징

마지막 모의수능 오늘부터 수시 원서접수 3일 서울 종로구 ■■동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3일 수능 모의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 국어·영어는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난이도가 비슷했고 수학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다. 대입전수로 복잡한 국어·영어는 A/B형 난이도 차가 뚜렷해 B형 선택자들이 대거 A형 갈아타기 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국세청이 최근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200여 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이들 중 3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조사가 끝난 11명에게 714억원을 추징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역외탈세와 관련한 자료를 입수·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확보한 자료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했고, 이 명단에 대해 정밀검증을 벌여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 확인자는 대부분 기업인들과 관련이 있었으며 무직, 교육인 등 비사업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중 현재까지 탈루 혐의가 확인된 29명과 개별 정보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가 확인된 10명 등 총 39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11명은 세무조사를 끝내 714억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28명 중 18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외 10명은 3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김선용씨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etroseoul.co.kr

'약장수'같은 의료기기 광고

편출인경·기능성 베개 등 허위·과대광고 대거 적발

인박스타킹이 하지정맥류와 부종, 피로감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편출안경으로 2.0 시력을 회복한다? 기능성 베개로 목통증을 해소하고 경추를 교정할 수 있다?

이같이 광고하는 의료기기의 효과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신문과 인터넷에 실린 의료기기 광고 209건을 거짓·과대 광고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승인 또는 허가를 내세우면서 실제 허가받은 내용에도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수법이 많았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 조합자극기'를 체지방 분해·혈액정화·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포장하거나, 단순히 인체를 끌어당기는 용도로 허가받은 '전동식 정형용 견인장치'를 키 성장을 돕고 중풍과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도움이 되는 기기로 둔갑시켰다.

또 통증 완화 및 부종 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 저온기에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 작용을 덧붙이기도 했다.

적발된 제품과 업체의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이웃에게 나눠줄 송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원들이 3일 경기 유원종합사회관에서 소외 이웃에게 전달할 사랑의 송편을 빚고 있다. /뉴시스

올여름 유충 99%이상 감소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해 겨울부터 '유충구제 월리미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올여름 모기 피해가 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 243개소에 유충구제약품 620병을 사전 배부하고 문자메시지를 일괄 배포, 전 지역이 일시에 방역에 나서도록 했다. 구는 이를 통해 유충 99% 섬충 96%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사당솔밭도서관 26일 개관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26일 사당동 솔밭로에 '사당솔밭도서관'을 개관한다고 3일 밝혔다.

사당솔밭도서관은 구립도서관 중 가장 큰 규모로 지하 3개 층부터 4개 층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확보, 지역 주차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자료실과 수유실, 디지털열람석 등을 갖췄다. 하늘정원에서는 영화 상영도 할 예정이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사망

천부적 재능의 파이프오르간 연주자이자 아프리카에서의 의료 봉사로 세계적인 존경을 받았던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1965년 9월 4일 90세를 일기로 사망해 가봉의 오고웨 강변에 묻혔다. 프랑스계 독일의 감리교인 알자스 지방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철학과 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아프리카에서의 선교와 치료를 위해 의학을 다시 공부했고 부인과 함께 헌신적 의료 활동을 했다. 철학자로서 생명에 대한 외경과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복잡성을 주장했던 슈바이처는 195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초·중·고교〉 학교 그만둔 6만8188명

고등학교는 100명 중 2명꼴로 학업 중단 — 사유는 '부적응'이 절반

"전통시장에 장 보러 왔어요" 전통시장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3일 서울 동작구 우림시장에서 바구니를 든 채 줄을 잡고 행렬으로 늘어서서 걷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등학생의 절반이 수도권 거주자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2학년도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6만8188명이라고 3일 밝혔다.

재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학업중단율은 1.01%였다. 이는 전년도 학업 중단자(7만4365명·1.06%)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만6828명(0.57%), 중학교 1만6426명(0.89%), 고등학교 3만4934명(1.82%) 등으로 상급 학교로 갈수록 학업 중단율이 더 높았다.

시·도별로는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경기도가 90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437명, 부산 2377명, 인천 1718명 등 순이었다. 특히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은 학업 중단 학생이 1만9580명으로 전체 학업 중단 학생의 56.0%를 차지했다.

자퇴 사유는 학교 부적응이 49.96%로 가장 많았고 조기 진학·종교·방송 등 자발적 학업 중단 22.81%, 해외 출국 12.53%, 가사(경제 사정, 가정 불화 등) 6.66%, 질병 4.09% 순이었다.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가 3.40%로 가장 많았고 특수목적고 1.73%, 일반고 1.50%, 자율고 1.26%로 나타났다.

/윤유리기자 grace106@metroseoul.co.kr

법률서비스 인력 양성 교육 워크숍 지난 30일부터 양일간 경주현대리조트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연제구(구청장 이위준)가 주관하고 부산경상대학교 총장 이달미 외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황준국)가 협력해 시행하고 있는 2013년 제2기 법률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워크숍이 열렸다. 전문 특강(법률서무원의 역할) 외에도 신뢰받는 이미지 연출 교육훈련생들의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한층 더 고취시켰으며, 소송 및 등기 실무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예 배움터이자 놀이터 학생예술문화회관 개관

부산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 배움터이자 놀이터가 될 부산시학생예술문화회관(관장 문희자)이 오는 10일 오후 3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문을 여는 부산시학생예술문화회관은 연면적 1만806㎡ 규모의 지하 2층~지상 3층 건물로 지어졌다. 총 예산은 423억원으로 부산시교육청 395억원, 부산시청 100억원, 북구청 28억원을 투자했다.

이곳에는 대극장(989석), 소극장(160석), 대연습실, 분장실, 개인연습실 등 공연시설을 비롯해 국악실, 기악실, 실용음악실, 도자공예실, 애니영상실, 의복실 등 체험활동실을 갖추고 있다.

또 체육관(252석),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도 마련됐다.

학생예술문화회관은 '행복한 예술문화인 육성을 위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지원'이라는 운영 목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체 체험학습, 개인 자율 체험학습, 예술 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생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예술적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단위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판소리, 타악영상반, 보컬밴드, 애니메이션, 단막극 등 32개 강좌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라대 신입생 전원에 장학금

신라대가 2014학년도 수시1차 원서 접수를 앞두고 파격적인 장학 특전으로 우수 신입생 유치에 나서 눈길을 끈다.

대학은 신입생 전원(최종 합격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수시1차모집 면접고사 전형 및 정시모집 모든 단위별 50% 이내(최초 합격자에 한함)의 합격자에 한해 입학 후 1학기의 수업료 중 3분의 1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각종 봉사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참가,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영역의 학생활동 참여 실적을 마일리지화해 일정한 점수가 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스마일장학금과 체외연수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훈가족 지원 확대 '맞손' 부산지방보훈청(청장 유주봉, 왼쪽)은 지난 2일 본청 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부산지사(회장 배병길, 오른쪽)와 희생용사 보훈가족 지원사업 확대 파트너십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공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851
발행·인쇄인 남궁 호
사회 편집인 김 희 학
편 집 국 장 조 인 호
부산지사장·국장 김 영 춘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650-2000
독 자 센 터 02)721-9811
2002년 5월 9일 등록 (서울 라00401) 서울특별시 가00006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부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추석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높은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구·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후에는 구·군 주관으로 추석 연휴 전날인 17일까지 총 621개 품목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제수용품을 많이 취급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과일류, 나물류,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최대 의료관광축제 개막

6일부터 사흘간 벡스코서…87개 업체 참가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 종합축제가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도시로 육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의료관광 컨벤션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높여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해운대 벡스코에서 '2013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의료관광 컨벤션은 부산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후원한다.

이번 의료관광컨벤션 전시장은 87개 업체 126개 부스가 마련돼 의료관광관, 해외특별관, 지과치료관, 메디뷰티관, 의료분쟁상담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운영한다.

의료관광관에서는 부산 거주 다문화 가정 500여 세대에 무료 건강검진을 해준다.

의료분쟁상담관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이 참가해 시민들의 의료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을 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임상시험 세미나, 부산시병원회의 의료경영 세미나, 국제 임플란트 세미나, 비즈니스 상담회 등이 열리며 부대 행사로 해외 바이어 의료기관 팸투어, 의료관광 체험 행사,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한편 이번 의료관광컨벤션과 함께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부산국제관광전'도 벡스코에서 동시에 개최돼 의료관광 홍보 효과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정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뉴시스

어린이 영웅 다 모였네 3일 오전 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10층 햇살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인기 만화 주인공인 스파이더맨 모형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센텀시티점은 오는 25일까지 마블코믹스 주인공인 아이언맨, 헐크, 스파이더맨, 토르, 캡틴아메리카 등의 실물 크기 피규어(1.5~3m)를 전시하는 '디즈니 캐릭터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추석연휴 전후 운전 조심하세요

교통사고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부산시의 추석 연휴 전후 5일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에 비해 귀성 차량의 이동이 많은 연휴 전날과 연휴 다음날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는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연휴 전날과 연휴 다음날 사고 건수는 평상시(3년간 일평균 사고 건수) 대비 각각 24.7%, 16.1% 증가한 48.3건, 4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추석 연휴 동안 사고 건수는 일평균보다 각각 14.8%(연휴 첫날), 34.6%(추석 당일), 39.8%(연휴 마지막 날)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16개 구·군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사상구가 전체 사고 건수 중 각각 10.7%, 10.9%, 9.1%를 차지하며 다른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추석 당일 사망자는 없었으며, 부상자의 경우 일평균보다 0.2% 감소한 51.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사고의 43%가 연휴 전날에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연휴 다음날이 70.7명으로 일평균보다 36.5% 높게 나타나 부상사고 위험이 분석 대상 5일 중 가장 높았다.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운전자의 집중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4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음주운전' 순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2010년, 2011년 각각 15건으로 동일했으나 2012년에는 21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 중 1건은 사망사고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0대(25.0%), 40대(21.7%), 30대(17.3%) 순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현장기술 중심 강의…취업에 강한 대학

취업률 85.5% 한국 대표 직업교육대 '우뚝'…인프라 보강·다양한 재능기부활동도 펼쳐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는 정말 취업에 강한 전문대학이다.

최근 2014학년도 [illegible]과정 신입생 모집 전형을 발표한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는 2013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취업률 85.5%를 자랑하는 취업 경쟁력 1위, 고객 만족 1위인 한국을 대표하는 직업교육 대학으로 우뚝 섰다.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도재윤(사진) 학장은 "폴리텍대는 철저한 학생 중심, 산업체가 요구하는 현장 중심교육으로 기술의 가치와 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학"이라고 밝히며 "한국을 대표하는 직업 중심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전 교직원들은 헌신적인 자세로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업 만족형 테크니션을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도재윤 학장과의 일문일답.

-폴리텍대학은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 취업에 중점을 두는데 다른 대학과의 차별성은?

우리 대학은 일반 전문대학과 달리 자체 개발한 고유 학사 모델이 있다. 바로 'FL(Factory Learning)시스템' 즉 국내 대학 최초로 산업 현장과 강의실을 연동시킨 실습 위주의 학사제도를 말한다.

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강의실로 옮겨와 기업에서 필요한 현장 기술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다.

또 기업의 애로 사항을 교수들이 기술 지원하거나 다양한 산학 협력을 통해 기업과 대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교수 1인당 10개 업체를 전담 관리하며 수시로 기업체를 방문해 신기술 동향, 취업 정보 등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잘 구축하고 있다.

- 높은 취업률에 비해 대학의 인지도가 높지 않다. 향후 어떻게 개선해나갈 계획인가?

타 대학에 비해 성과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이 2006년 3월에 출범해 현재 7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도 국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이에 취업 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학 브랜드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관 기관 및 언론기관과 고등학교를 방문, 우리 대학 취업률과 학사 운영 시스템을 알리고 있으며 많은 기업체에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 대학의 재능기부는 어떠한가?

북구청과 연계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본교 자동차학과 재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집을 방문해 무료 점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통신시스템 재학생들도 함께 방문해 가정 내 컴퓨터를 무료로 점검해주고 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수동 휠체어 바람 넣기, 자전거 수리, 가사도우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폴리텍대의 비전 및 지원 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우리 대학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특수대학이다. 철저한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맞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의 가치와 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학이다.

또 기업 만족형 테크니션을 양성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 훈련 인프라를 보강하고 있다.

학력과 간판보다는 실력을 중시하고 실용적인 배움을 꿈꾸는 학생들은 누구나 환영하며 우리 교직원 모두는 뜨거운 열정으로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부터 수시 원서접수…면접비중 높아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가 2014학년도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착한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 혜택 등 차별화된 입학전형을 갖추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수시와 정시 모두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전형으로 모집하며 면접의 비중이 타 대학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일반전형은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전형은 전문계고 및 인문계고 졸업(예정)자, 기술기능 분야의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체 근무 경력자(원서 접수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훈련 과정을 이수(예정)한 자 중 1개 항목 해당 시 지원 가능하다.

정원외전형은 3가지로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의 경우와 25세 이상인 자,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산업체와 군의 위탁생(산학 협력 실적이 있는 업체), 장애인, 차상위계층자, 다문화 가정 등에 해당하면 된다. 수시모집만 가능한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만 면접 100%로 진행한다.

모든 수시전형은 학생부 성적(출석 포함)이나 검정고시 또는 대학 성적 70%와 면접 25% 비율을 반영하며, 정시모집 수능 성적과 면접의 비율은 동일하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외국어 능력,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 등 다양한 분야의 가산점 적용 항목이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좋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폴리텍Ⅶ대학(부산, 창원, 울산캠퍼스) 내에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수시 1차 접수는 9월 4~29일, 2차는 11월 1~13일이며, 정시모집은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홈페이지(http://ipsi.kopo.ac.kr/busan)를 참조하면 된다.

우주의 신비 보고 듣고 느끼고

5일부터 과학체험 축제

부산과학기술협의회는 가을을 맞아 부산 북구,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 등과 함께 다양한 과학 체험 축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부산과기협은 오는 5일 오후 6시부터 북구문화빙상센터 야외광장에서 북구사이언스페스티벌을 연다. 올해로 6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름 10m의 대형 에어돔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밤하늘의 별자리를 재현한 가상 별자리(스텔라리움) 체험을 비롯해 굴절망원경 4대, 뉴턴식 망원경 2대를 이용한 천체 관측 체험 등을 진행한다.

관측에 앞서 오후 6시30분에는 '별 헤는 박사'로 알려진 박석재 전 한국천문연구원장의 천체 특별 강연이 마련된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24절기 미니북 만들기, 별자리 휴대전화 고리 만들기 등의 천재 체험 [illegible]도 동시에 열린다.

또 10월 2일(오후 1~5시), 3일(오전 10시~오후 5시)에는 금정구 광성 [illegible]박람회가 금정문화회관 앞에서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다빈치 릴라켭터 만들기 등 다양한 과학 창의 체험이 진행된다.

연제구에서는 10월 19일 온천천 시민공원(세병교 아래 농구장 일대, 오전 10시~오후 1시)에서 연제도요스를 체험마당이 열린다.

이와 함께 10월 25일 오후 6시 부산 동래구 동래읍성에 위치한 장영실 과학동산에서 부산 동래 출신의 과학 선현 장영실을 주제로 하는 '장영실 천재과학축제'가 펼쳐진다.

각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북구,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청과 궁리마루 홈페이지(www.mspar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개인택시 안전기준 위반 61건

부산시는 개인택시 지도 점검 결과 자동차관리법과 안전 기준을 위반한 31건, 운송종사자 준수 사항 위반 30건 등 총 61건을 적발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부산시와 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조합 합동으로 개인택시 1만3973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택시조합, LPG충전소, 부산역 및 김해공항 등 택시가 몰리는 지역을 순회하며 자동차 안전 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 사항 등을 집중 확인했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16건) ▲전조등 및 LED 등화장치 불법설치(14건) 등 총 61건의 자동차 안전 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 사항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그랜저 제친 '작은 거인'

모닝 올들어 8월 까지 누적판매 6만 2123대 '1위'

기아차 '모닝'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팔린 차종으로 집계됐다.

매달 판매 순위에서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현대차 '그랜저'를 앞어낸 결과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지난달 내수 판매실적을 결산한 결과 모닝은 1~8월 누적으로 6만2123대가 판매되며 다시 차종별 판매 1위를 차지했다. 6만1153대가 팔린 그랜저는 쏘나타(6만1532대)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상반기 베스트셀링카에 등극했던 모닝은 7월 누적으로 5만4384대가 판매되며 5만4696대가 팔린 그랜저에 312대 차로 뒤지며 베스트 셀링카 자리를 내준 바 있다.

그러나 8월 한 달간 현대차 노조의 파업과 경기불황에 따른 대형차 판매 감소 영향으로 그랜저가 6457대 팔리며 주춤하는 사이 모닝은 7739대가 판매되며 역전에 성공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았다면 모닝은 1위는 못 했을 가능성이 컸다는 얘기다.

연말까지 모닝이 이러한 추세를 유지할 경우 한국GM의 마티즈(현 스파크)가 8만8951대 판매로 1위를 차지한 이후 15년 만에 경차가 '베스트 셀링카'에 오르게 된다.

/박상훈기자 zen@

너무 얄미운 '모바일 족쇄'

e메일 확인 업무 등 24시간 괴롭히는 스마트폰
독일 '퇴근한 직원에 연락금지' 규정 신설 화제

조선미기자의 글로벌 어코노마

현대 직장인의 가장 큰 업무 스트레스 중 하나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e메일과 전화다. 특히 퇴근한 뒤에도 스마트폰으로 전화와 e메일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근무 시간은 사실상 '24시간 풀타임' 대기 상태다. 최근 독일에서 이 같은 '스마트폰 족쇄'를 풀어주는 파격적인 규정이 신설돼 화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폰 데어 라이엔 독일 노동부 장관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근무 시간 외에 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서명했다. 회사 밖에서 근로자의 쉴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라이엔 장관은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이런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에서 벗어나 온전히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녹초가 돼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직원들에게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에도 득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라이엔 장관은 "퇴근 후 연락이 되지 않는 곳에 어디든 갈 수 있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자들에게 회사를 위해 '최소한의 내비책'은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독일 노동부의 이번 근로자 규정은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폴크스바겐과 BMW, 스포츠 의류업체 푸마의 근로 규정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폴크스바겐은 2011년부터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 30분 뒤부터는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BMW와 푸마는 직원들에게 여가 시간이나 주말에 e메일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 기업에도 이런 규정이 마련될까? 회사원 권영진(31)씨는 "하루에 e메일을 50통 정도 받는데 요즘은 퇴근 후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도 업무 지시가 내려와 골머리가 아프다"면서 "한국에도 이런 규정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씨는 이어 "하지만 회사가 '긴급 상황'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규정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퇴근 후 근로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회사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게 먼저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seonmi@metroseoul.co.kr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보세요
고객님께
불친절한 루스모는
바로 전화주십시오
고객만족센터
02-6925-1001
친절한 루스모

뉴스&뉴스

체크카드 일일 이용한도 600만원으로 올린다

● 체크카드의 1일 이용 한도가 신용카드 수준인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현 200만~300만원으로 묶여있는 체크카드 하루 이용 한도가 이처럼 확대된다.

또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한다.

긴급 필요로 심야 시간에 일시 한도 확대를 요청할 경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해준다.

/김현정기자

이달 소멸하는 '로또 당첨금 50억' 찾아가세요

● 온라인 복권 수탁법인 (주)나눔로또는 지난해 9월 추첨한 511, 512회 로또 1등 당첨자가 당첨금 30억원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3일 밝혔다.

1등 미수령 금액은 511회 21억원, 512회 9억원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각각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이번달 16일과 23일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전액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 2억6000만원에 달하는 5건의 로또 2등 당첨금도 미수령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보배기자

시장 찾아가는 SKT AS센터 SK텔레콤 엔지니어가 3일 종로재래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방문객을 상담하며 스마트폰을 수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추석을 맞아 중고재래시장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단말기 수리, IT 교육 등을 벌이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5일까지 진행한다. /SKT 제공

대한항공 신입 200명 공채

대한항공이 200여 명의 2014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지원서는 13일까지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recruit.koreanair.co.kr)에 접수하면 된다.

모집 대상 전공 학사 이상 학위 및 공인 영어 자격 소지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병역 필 혹은 면제를 받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대한항공은 서류전형, 면접전형, 인성·직무능력검사, 신체검사 등을 거쳐 12월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앞서 올 상반기 중 객실승무원, 항공우주 연구 개발 인력 등 500여 명을 채용한 대한항공은 하반기에도 대졸 공채, 남녀 객실승무원, 운항승무원 등을 포함해 700여 명을 추가 채용, 올해 총 120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미래경기자

'MS 스마트폰' 띄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 부문을 인수했다. 이로써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MS는 모바일 기기 전문 업체로 탈바꿈하며 애플, 삼성전자, 구글 등 단말기 업체와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MS는 2일(현지시간) 노키아의 휴대전화 단말기 및 서비스 사업부를 37억9000만 유로, 특허를 16억5000만 유로 등 총 54억4000만 유로(약 7조8654억원)로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키아는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피처폰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데다 윈도폰 기반 주력 스마트폰 제품인 루미아(Lumia) 시리즈마저 애플과 삼성 등에 밀려 고전하면서 9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왔다. 지난 2분기 노키아는 스마트폰 740만 대를 판매하며 전분기 대비 32% 증가했지만, 피처폰 판매는 5370만대를 기록하면서 전 분기 대비 27% 감소하며 9분기 동안 50억 유로의 손실을 입었다.

◆소프트웨어로 판도 바꿀수도

특히 업계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며 다음달 출시 예정인 새 운영체제(OS) 윈도 8.1을 적용한 단말기와 전용 콘텐츠를 결합한 형태로 시장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를 통해 소프트웨어업체에서 단말기 제조까지 사업을 확장한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iOS와 안드로이드 시장이 압도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윈도폰이 시장 판도를 흔들만한 한방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프트웨어부문에서 저력이 있는 MS가 만약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 차별화된 제품을 내놓는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IT업계가 아니냐"고 설명했다.

MS의 노키아 인수가 삼성전자·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에 호재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종석 현대증권 연구원은 "MS의 이번 노키아 인수가 오히려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한 기업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노키아 스마트폰이 강세를 보이는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노키아의 스마트폰 공백이 당분간 불가피해진 만큼 이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4년 공들인 MMORPG대작 '에오스' 첫선

NHN엔터테인먼트(옛 한게임)가 모바일게임이 득세하는 와중에 MMORPG를 선보인다.

이 회사는 3일 신작 '에오스'를 소개하고 11일부터 공개 서비스한다고 발표했다. 에오스는 넥슨·엔씨소프트 출신 개발진이 모여 만든 게임개발사 엔비어스가 4년에 걸쳐 개발한 대작이다.

에오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바일게임과 온라인게임의 내일을 점칠 수 있는 셈이다.

이 게임은 MMORPG 장르이면서도 복잡하고 어렵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특히 체력을 회복해주는 힐러(healer) 직업이 따로 없어 팀(파티)을 꾸릴 때 힐러를 모집해야 하는 부담이 적다.

모바일기기와의 연동 기능을 강화해 온라인게임 특유의 리스크를 줄인 대목도 눈에 띈다.

스마트폰 앱으로 게임에 접속해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도 있고, 아이템을 주고받거나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총괄디렉터는 "NHN엔터테인먼트가 NHN에서 분할한 이후 내놓은 첫 번째 온라인게임이다.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에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봉원기자 ssm@

토네이도가 휩쓴 자리 2일 일본 도쿄 북부 사이타마현 주택가를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전봇대가 꺾여 거리에 쓰러져 있다. 2일 오후 간토(관동) 지역을 덮친 토네이도로 63여 명이 다치고 11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AP 뉴시스

日 정부, 5170억 들여 차수벽 건설·정화설비 증설…원전 오염수 대책 발표

올림픽 유치용 '미봉책'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유출 사태와 관련, 총 470억 엔(약 5170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3일 일본 정부는 원자력재해대책본부(본부장 총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원전 주변에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동토 차수벽 건설과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정화설비 증설 등에 200억 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계 각료회의와 정부 현지 사무소를 설치,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과 오염수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오염수 문제를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전면에 나서 해결하고 필요한 재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아베 신조(오른쪽) 총리가 원자력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정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아소 다로 부총리. /AP 뉴시스

하지만 아베 정권이 2020년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를 앞두고 이날 서둘러 제시한 종합 대책에는 동토차수벽 건설 등 시간이 걸리는 대책이 많아 오염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현 주민들도 원전 오염수 유출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고소단 무토 루이코 단장 등 3명은 '사람의 건강에 관한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공해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히로세 나오미 도쿄전력 사장 등 전·현직 간부 32명과 도쿄전력 법인에 대한 고발장을 후쿠시마현 경찰청에 제출했다.

후쿠시마원전 고소단은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에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책을 취하지 않아 매일 300~400t의 오염수가 유출되도록 방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고소단은 지난 2011년 3월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 도쿄전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중동선 내비보다 총격전 앱

스마트폰 이용자 "필수"

중동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필수 애플리케이션(앱)은 '총격전 앱'!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인접국 레바논에서는 위험 지역을 미리 알려주는 '총격전 앱'이 필수품이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레바논인들 사이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지는 장소를 알려주거나 바리케이드 주변의 안전한 도로를 안내해주는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앱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앱 개발자인 우함마드 타바가 출시한 앱 'Ma2too3a'는 앱 이용자들이 보내오는 시위, 교통 바리케이드, 총돌 사고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도에 표시한다. 지금까지 누적된 이 앱의 내려받기 횟수는 8만 건을 넘어섰다.

또 다른 앱 개발자인 피라스 쉬즈네기가 개발 중인 앱 '위이 투 세이프티'는 특별히 총소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앱 이용자가 총소리를 녹음해 보내오면 자료실에 축적된 다양한 소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어떤 종류의 무기인지를 알아내고 삼각 측량법으로 정확한 교전 장소와 전투의 유형을 밝혀내는 방식이다. /조선미기자

"내 친구 김정은 만나러 갑니다" 올 초 북한을 방문해 화제를 모았던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출신의 데니스 로드먼이 3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공항을 떠나기 앞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로드먼은 '내 친구 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먼의 이번 방북은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의 석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 뉴시스

야후 中서도 서비스 중단

미국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 야후가 한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서비스를 중단했다.

야후 차이나는 "2012년 알리바바 그룹과 미국 야후 간 협의에 따라 야후 차이나는 은밀 전략을 조정한다"면서 "2013년 9월 1일 오전 6시부터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문을 통해 밝혔다.

현재 야후 차이나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지문이 떴다가 중국 인터넷 회사인 알리바바의 공익사업 안내 사이트로 연결된다. 야후 차이나 직원들은 모두 알리바바의 공익사업팀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3일>

코스피	코스닥
1933.74 (+8.93)	525.59 (+0.71)

금리	환율
2.83 (+0.01)	1098.50 (변동없음)

중소기업 한가위 상여금 평균 83만원

중소기업 직원들은 이번 추석 상여금으로 평균 83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중소기업 631곳을 대상으로 '추석자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지난해보다 5.1%포인트 증가한 66.5% 비율을 보였다. 추석 상여금 규모는 평균 83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이 추석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업체당 평균 2억5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확보 가능한 금액은 1억7460만원, 부족한 금액은 845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67.4%가 준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추석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들은 매출 감소(68.2%)와 판매대금 회수 및 지연(49.2%)을 주원인으로 거론했다. /정윤욱기자

뉴스 & 뉴스

무보험사고땐 '1544-0049' 신고

손해보험협회와 국토교통부가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 신고 통합 콜센터 안내번호인 '1544-0049'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사 1년새 1900명 감원

● 여의도 증권가의 감원 '칼바람'이 계속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영업 62개 증권사의 임원과 직원 수는 4만1687명으로 1년 새 1900명(4.4%) 줄었다.

지난 3월 말(4만2317명)과 비교해도 630명(1.5%) 감소했다.

객장을 찾는 고객이 줄면서 증권사의 국내 영업지점도 지난 6월 말 1565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곳(10.3%)이 사라졌다. /김현정기자

한국 증시 시총 '세계 11위'

● 우리나라 증시의 시가총액이 세계 1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외신에 따르면 세계 87개국 증시 시총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증시의 시총은 1조900억 달러(1일 현재)다. 미국(19조4920억 달러), 일본(4조1780억 달러), 영국(3조5460억 달러) 등 선진시장에 이어 11번째로 큰 시장이다.

신흥시장 가운데 홍콩(3조2300억 달러), 중국(3조1600억 달러) 증시만 한국을 앞섰다. /김희정기자

은행 수시입출 통장 '제동'

● 감독 당국이 주요 은행들의 수시입출식 통장 판매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고 금리만 강조한 고금리 수시입출식 통장 광고가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이 크다며 시중은행에 상세한 상품 설명을 하라고 최근 지시했다.

수시입출식 상품 판매시 설명 의무를 면제한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변우기자

금융가 추석손님맞이 준비 한창

은행·카드사 한가위 고객 이벤트 챙기세요

금융업계도 벌써 추석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추석명절을 맞아 교통비부터 커피값, 제수용품까지 풍성한 혜택을 앞세워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여성 고객들의 추석명절증후군 극복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31일까지 여성 고객이 이벤트 대상 상품에 가입하거나 하나로 가족 고객 중 여성 고객이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응모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상품은 적립식 예금, 펀드를 10만원 이상 1년간 자동이체 가입하거나 정기예금 300만원 이상은 가입한 경우 해당된다. 추첨을 통해 제주도 2박3일 여행권, 롯데호텔 1박2일 힐링패키지, 건식족욕기 등을 선물로 준다. 이 은행은 또 농축산물 추석 선물세트를 'NH바로바로 몰'에서 최대 50% 할인하는 '추석맞이 대잔치'를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한다. 곶감, 한우, 과일, 육삼세트 등 100여개 품목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14일까지 씨티카드로 코레일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을 구매할 경우 최대 100%까지 씨티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씨티카드 결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코레일 상품권, 스타벅스 커피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17~22일 귀성·귀경길에 오르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한카드로 10만원 이상 주유하고 후불하이패스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할 경우 통행료의 50%를 캐시백 해준다. /사진환기자 min@metroseoul.co.kr

'금값' 가을 과일 덥썩 사기 겁나네 긴 장마와 폭염으로 공급이 줄어든 제수용과 과일 가격이 추석을 앞두고 급등한 가운데 3일 다. 마트를 찾은 고객이 과일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황금의 제국' 못잖은 효성 후계전쟁

장남·삼남 지분경쟁 치열 모친 보유분 향방에 달려

효성그룹의 후계 구도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왼쪽 사진) 사장과 3남 조현상(오른쪽) 부사장의 각축전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지분 경쟁을 펼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달 22일과 27일, 28일, 3일에 걸쳐 각 20만6000여 주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조 사장은 지분을 9.14%로 끌어올리며 2대 주주에 올랐다. 조 사장이 2대 주주에 오른 건 2008년 11월 이후 4년10개월 만에 처음이다. 2대 주주를 줄곧 지켜오던 조 부사장은 8.76%의 지분을 보유하며 3대 주주로 내려앉았다.

두 형제의 이 같은 경쟁적 지분 확보는 올 2월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4대 주주였던 조 전 부사장은 보유한 효성 지분 240만 주를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세일) 방식으로 처분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조 사장과 조 부사장은 본격적으로 효성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하며 후계 구도 경쟁에 불을 지폈다. 조 사장이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조 사장이 후계 구도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그 차이가 워낙 미미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두 형제의 어머니인 송광자 여사의 행보에도 주목하고 있다. 송 여사는 올 4월 22일 2610주를 취득하며 0.47%(16만4099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두 형제의 보유 주식 지분율 격차가 0.38%포인트에 불과해 송 여사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후계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송 여사가 주식을 추가 취득한 날 조 사장의 자녀인 인영·인서양도 주식을 각각 9680주씩 동반 매입한 점을 미뤄 손녀들과 함께 지분을 취득한 것은 조 사장 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개원기자

전월세금 폭등 인한 건보료 부담 덜었네

전월세금 폭등으로 인한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도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역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월세 급등에 따른 서민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대책을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전월세로 사는 집에서 전월세 기한 만료로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했을 때에 한해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존 전월세금의 10%까지만 보증금 인상액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 인상분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부채로 충당할 경우 보증금 인상액 10% 범위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민석기자

취업빙하기 '우물 밖으로!'

수목! 해외취업 성공전략

IT·간호·건설토목·항공승무원 수요 많아

"취업 빙하기가 도래한다는데 자리리 해외로 눈을 돌려볼까."

최근 국내에서 일자리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고민을 하는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도전했다가 시간은 물론 돈까지 낭비하는 경우가 비다하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도움을 받아 꿈의 도전, 해외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을 알아본다.

◆ **유리한 직종·국가를 찾아라**

국내 구직자들이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는 직종과 국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

현재 IT와 간호사 직종은 해외 출국 인구 중 60%가량을 차지할 만큼 인력 수요가 많다. 건설토목과 항공승무원이 진출할 수 있는 국가도 많으며 한국인 출신 무역영업인과 요리사를 원하는 국가도 상당수 있다.

◆ **어학 능력은 기본**

기업체가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어학 능력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때 토익·토플 등 점수 위주의 어학 실력이 아니라 현지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격증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IT 분야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격증은 국가 간 자격 상호 인정을 받을 수 없다.

◆ **반드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해외 취업은 장기전이니 업체에 지원하고 면접을 거쳐 근로계약을 맺은 뒤 취업비자를 받고 출국하기까지 최소한 3개월에서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급한 마음에 관광비자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식 취업비자가 없으면 합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현지에서 고용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정확한 기업 정보 파악**

취업 확정 통보를 받으면 근무할 국가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이때 업무 기업 위치·생활 조건 등은 중간 에이전트들의 말만 믿지 말고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믿을 만한 기관의 도움을 받아라**

한국산업인력공단(www.worldjob.or.kr)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믿을 만한 해외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기관의 공신력을 확인하려면 국외 유료 직업소개업체의 경우 노동부에 신고 등록돼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이국명기자 kmles@metroseoul.co.kr

창업에 도전하세요 최문기(오른쪽 둘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3일 서울 삼일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및 벤처1세대 멘토링센터' 개관식에서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창업지원센터에서는 해외 창업을 시도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법·제도·회계·특허·투자 등에 대해 분야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KETI 석·박사 과정 학생 모집

전자부품연구원(KETI)은 2014학년도 전기 석·박사 학위 과정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전자공학·물리학·화학공학·컴퓨터공학·응용미학·나노공학·신소재공학·금속재료공학·제어계측공학·전자계산학 등으로 나뉜다. 지원 서류는 e메일(icenanu@keti.re.kr)로 보내면 된다.

UST 후기 신입생 원서접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석사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 박사과정의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4년제 대졸 및 2월 졸업 예정자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는 반드시 토익 기준 730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원서 접수는 17일까지 홈페이지(www.ustapply.co.kr)에서 가능하다. 문의 (042)865-2331

취업포털 커리어와 함께하는

주간 인기 취업검색어

1위 대기업 하반기 지원요건
2위 금융권계 연봉
3위 공인 어학 자격증 종류
4위 금융권 하반기 채용
5위 대인 스펙

*8월 26일~9월 3일 인기 검색 순위

주간 채용캘린더

4(수)	조선호텔 신라 건창시스템
5(목)	현대미포조선, 농심기한세
6(금)	하이에이보라레이 GS리테일
7(토)	자연사연구소, 현신금속공업
8(일)	에코로지아이엔셜 센티럼터빈팔호텔
9(월)	티켓몬스터 특종레코드
10(화)	부산항만진흥원 아케미코리아이선 같은 원초아

* 서류마감일 기준
* 자료제공: 커리어(www.career.co.kr)

독창·유연·유창·정교성 길러주는 스킬

박성훈 기자의 두뇌 강의 체험기

한우리독서지도사③ <끝>

어느덧 독서지도사 강의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핵심 주제는 독서 후 지도다.

책을 고르고 바르게 읽고 토론하는 과정의 퍼포먼스는 독서 후 시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창의력을 기르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창의력은 독창성·유연성·유창성·정교성으로 이뤄진다. 이 중 독창성을 제외하면 다소 생소하다.

유연성은 사고의 포괄성이다. "노란색인데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질문에 바나나 말고도 치즈·빵·버터 등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유창성, 이렇게 쏟아낸 생각을 세세하게 가다듬는 게 정교성이다.

결국 어린이의 창의성을 키우려면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브레인스토밍으로 알려진 자유 연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교사는 물론이고 주위 학생들이 서로 비판을 하거나 생각의 차이를 따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각 아이디어에 대한 장단점을 발견한 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기법을 숙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밭을 반밖에 갈지 못했네 하고 한숨 쉬는 농부를 보면서 밭을 벌써 반이나 갈았네 하며 웃을 수 있는 농부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강제결합법도 효과적이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해 짧은 글을 쓰게 하거나 그림 등한 이야기를 꾸미게 하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상상을 해보고 이야기해보자" "만약 이렇게 됐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와 같은 질문을 자주 던지는 것도 효과적이다. 부업은 물론이고 본업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독서지도사. 이제 도전은 독자의 몫이다.

넥슨맨이 꿈이라면…모여라! 커리어클럽

국내 1위 게임업체인 넥슨이 하반기 공채를 실시한다.

게임하이·네오플·넥스토릭·넥슨 등 넥슨 컴퍼니 4개사는 24일 오후 5시까지 공채 사이트(career.nexon.com)에서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신입사원의 모집 분야는 게임 프로그래머·게임 기획·게임아트, 해외 사업 부문이며 경력사원은 게임 사업·IT 엔지니어를 포함한 전 부문을 모집한다.

최종 합격자는 직군별 전형과 면접을 거쳐 1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넥슨 컴퍼니는 하반기 공채 및 모집 분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개 취업설명회 '커리어 클럽'을 오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진행한다.

/이국명기자

“엇갈리는 사랑 공감갈걸요”

연극 '클로저' 캐스팅 재정비하고 관객맞이
앨리스 맡은 이윤지 “처절하게 그려내겠다”

동명의 영화로 익숙한 연극 '클로저'가 새로운 캐스팅으로 재정비하고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영국의 젊은 극작가 패트릭 마버의 대표작인 이 연극은 아슬아슬하게 얽힌 네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상처 입히면서 집착과 망욕 등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표출해내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1997년 5월 영국 런던 초연 당시 권위 있는 해외 유수의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휩쓸었으며 2004년에는 줄리아 로버츠 주드 로 내털리 포트먼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총출동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국내 무대에서도 문근영 등 스타급 배우들이 출연해 화제가 된 작품으로 올해는 이윤지·진세연 한조아가 부고 전문 기자 댄과 첫 눈에 사랑에 빠지는 앨리스를 번갈아 맡고 신성록·최수형 이동하가 댄을 연기한다.

3일 대학로 아트원씨어터에서 열린 프레스콜에서 추민주 연출가는 “엇갈리는 사랑으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인 사랑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라고 작품을 설명했다.

이윤지는 “어릴 적부터 영화 '클로저' 스틸샷을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해놨다”면서 “앨리스가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살아온 인생이 질고 걸죽하다. 그의 인생을 짝나라하고 처절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익근무를 마치고 이 작품으로 2년 여 만에 무대에 복귀한 신성록은 “2년간 공백기를 가지며 주말에 공연을 보곤 했는데 무대 위 배우들이 부러웠다. 그래도 공익근무를 하다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면서 “성장한 연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고민도 많았고 노력도 많이 했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연극은 12월 1일까지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에서 공연된다. 문의 1566-7527

/박지원기자 tsk0427@metroseoul.co.kr

3일 서울 대학로 아트원씨어터에서 열린 연극 '클로저' 프레스콜에서 배우 이윤지와 신성록이 열연하고 있다. /뉴시스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9화 글·그림 이가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타악으로 만나는 '관동별곡'

정규하 연출…24일 공연

정철의 관동별곡을 모티브로 한 화려한 타악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진다.

한국의 토속적인 타악 리듬을 연극·무용·미술·마임 등의 다양한 공연과 접목해 온 멀티 퍼커션 타악 연주자인 정규하가 연출을 맡은 '정규하 타악공연 관동별곡'이 24일 남산국악당에서 열린다.

관동팔경을 유람한 후 소감을 읊은 노래인 관동별곡을 창작한 송강 정철의 불후의 예술혼을 타악과 퓨전국악, 콘트라베이스의 음률로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전통 타악기 30대와 월드퍼커션 15대로 만든 초대형 멀티테스킹 퍼커션 악기인 관동대북으로 관동팔경의 절경을 표현한다.

또 가로 8m, 세로 2.5m의 벽을 가득 채운 초대형 화폭에 금강산에서 시작해서 동해안을 따라 울진의 망양정까지 내려가는 관동별곡의 여정을 아름다운 수묵화로 그려내 볼거리를 더한다.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이건승, 음악그룹 the 튠(이성순·농담·작은 신이), 드로잉 아티스트 김안식 작가, 대북 연주자 노소롱과 김경수, 한민족예술단 김소연이 참여한다. 문의 02)3445-7685

/박선현기자

뮤지컬 '그리스' 재공연

뮤지컬 '그리스'가 3년 만에 대학로로 돌아온다.

2003년 한국 초연 이후 지난 10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 작품은 대학로에 새로 선립된 공연장 유니플렉스의 개관작으로 선정돼 다음달 22일부터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작품의 배경인 라이델 고등학교의 풍경을 더욱 섬세하게 묘사하는 등 대학로의 특성에 맞춰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보인다.

소이정·김소현·윤공주 임혜영 등 스타들이 거쳐간 여자 주인공 샌디 역에는 그룹 레인보우의 오승아(사진)가 캐스팅됐다. 문의 1588-5212

/박선현기자

와썹의 왼쪽 지애·진주·우주·수진·다인·나리. 나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벗지 않아도 섹시한 걸그룹 호호호"

'이슈메이커' 대형신인 **와썹**

아이돌 그룹의 홍보 전쟁이 불을 뿜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화제를 뿌리고 다니는 대형 신인이 등장했다. 7인조 걸그룹 와썹(진주·다인·나다·나리·지애·우주·수진)은 오랜 연습과 실전으로 쌓은 탄탄한 실력 위에 아이돌의 정형화된 틀을 벗은 자유로운 무대 매너로 음악 시장을 활보하고 있다.

● 와썹 프로필

진주 1990년생. 163cm. 리더. 숙명여대 무용학과 휴학. 손호영 등 백업댄서 활동

다인 1990년생. 163cm. 호원대 방송연예학부 연기전공 휴학. 헬로비너스 연습생 1년 등 연습 기간 7년. 댄스강사 활동

나다 1991년생. 164cm. 백제예술대 방송연예학과 휴학. 현아·손호영 등 백업댄서 활동

나리 1992년생. 165cm. 클론댄스스쿨 출신. 현아·김건모·홍경민 등 백업댄서 활동

지애 1995년생. 168cm. 메인보컬. 한국예고 3학년

우주 1996년생. 164cm. 클론댄스스쿨 출신. 공연예술고 2학년.

수진 1996년생. 166cm. 한국예고 2학년. 박중훈 감독 영화 '톱스타' 출연.

#방송 출연 앞두고 안무·의상 수정

이들은 데뷔 전부터 선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안무 연습을 하는 영상이 흔한 걸그룹의 엉덩이 털기 춤 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부터다. 미국에서 흑인들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트월킹이라는 장르의 안무로, 리한나·니키 미나즈 등 흑인 팝스타들이 무대에서 즐겨 추며 화제를 모았다.

미국에서도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춤으로 국내에서 이 춤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가수는 와썹이 처음이다. 쉴 새 없이 엉덩이를 털어대는 장면이 실린 뮤직비디오는 심의에 관대한 케이블 채널에서도 '19금' 판정을 받았고, 한 지상파 방송은 "수정을 해도 소용없다. (가장 격렬하게 춤을 추는) 한 멤버를 제외하지 않는 한 '19금'은 변함없다"고 못을 박았다.

다몰한 몸매까지 더해 다른 여성 그룹과 비교해 평범한(?) 의상이지만 지상파 음악 방송 출연을 앞두고 안무와 의상을 모두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성적 매력을 드러내는 춤이라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술로 받아들여졌으면 해요. 그러기 위해 트월킹을 대중화시키고 싶어요."(다인)

"세기 특인 제형을 타고나서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노래 전체를 안무로 꽉꽉 채워서 무대가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관객들과 신나게 놀고 싶어요. 예쁜 걸그룹의 안무가 아닌 힘이 넘치고 거칠기도 한 강렬한 댄스를 제대로 맛볼 수 있을 거예요."(나다)

"야한 것과 멋있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는 벗지 않아도 섹시한 매력이 풍기거든요."(진주)

> **데뷔 한달 '엉덩이털기춤' 화제**
> **야한 것과 멋진 건 종이 한장 차**
> **연예인 아닌 뮤지션 되고싶어요**
> ”

미성년자인 지애·우주·수진은 "회사에서 시켜서 기계적으로 따라 하는 춤이었다면 부담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춤의 한 장르로서 가려서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군인에 인기만점 … 해외팬 크게 늘어

가요계에 수많은 신인이 쏟아졌다 사라지고 있지만 와썹에 대한 반응은 하루가 다르게 끓어오르고 있다. 글로벌 K-팝 기류를 타고 해외 팬들의 수는 급속히 늘고 있다. 유튜브 영상과 공식 페이스북 댓글은 대부분 해외 팬들이 올리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 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소속사는 밝혔다.

데뷔 직전 보령머드축제 무대에 올랐던 이들은 수천 명의 해외 팬들의 환호를 받았고, 당시 한 백인 남성 팬이 대기실로 난입해 나다를 성추행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다는 "누가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고 가서 깜짝 놀랐다. 당황했지만 나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였다. 앞으로는 무대에서만 예쁜 몸매를 봐줬으면 좋겠다"며 신인답지 않은 담담한 여유를 보였다.

팀 이름과 같은 데뷔곡 '와썹'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걸그룹 인기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군인들의 반응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데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인 그룹임에도 9월에 열릴 국군방송 '위문열차' 전 회 출연을 제안받았다.

"연예인이 아닌 뮤지션,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예쁘고 섹시하다'는 말보다 '멋있다. 와썹은 다르다'는 평가를 듣고 싶어요. 항상 놀랄 만한 참신한 시도를 하며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그룹이 될 거예요."(나리)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서동휘(라코드)(아름) 디자인/김아람

star bag

과거 음반 14종 재발매

가왕' 조용필이 과거 출시한 14장의 앨범을 재발매한다.

9~16집과 18집, 30주년 베스트 음반 1~3집, 40주년 라이브 음반, 40주년 DVD 등 14종이 음반유통사 유니버설뮤직을 통해 출시된다.

17집은 현재 유통 중이라 목록에서 빠졌다. 유니버설뮤직은 "레이블을 옮기면 이전 발표 음반을 새 레이블에서 내는 것이 외국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관례"라고 밝혔다.

8개국 앨범차트 1위 올라

빅뱅 지드래곤이 1일 출시한 2집 쿠데타으로 국내는 물론 아시아 각국 앨범차트 정상을 석권했다.

새 앨범은 3일 오전 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홍콩·대만·인도네시아·싱가포르·마카오 등 8개국 아이튠즈 앨범차트 1위에 올랐다. 더블 타이틀곡인 '니가 뭔데'와 '블랙'은 멜론·엠넷·벅스·올레·다음뮤직·소리바다 등 9개 음원차트를 양분해 1위를 휩쓸었다. 두 곡은 각국 아이튠즈 싱글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

'루아유'팀에 100인분 식사

배우 소이현이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후아유' 출연진과 제작진을 위해 통 큰 식사를 제공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세트장 야외 촬영장에 100인분의 점심 식사를 준비해 대접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밤낮 없이 이어지는 촬영 강행군에 지친 제작진과 연기자들에게 깜짝 이벤트로 든든한 한 끼를 선물하고 싶었던 소이현의 제안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영화제' 홍보대사

구혜선이 제14회 '장애인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배우·영화감독·작가·화가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재능을 펼치고 있는 구혜선은 이 영화제의 트레일러를 연출한 것은 물론 직접 출연까지 하며 수중 촬영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을 보였다.

영화제 측은 "한 가지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도전을 즐기는 모습이 장애를 넘어선 도전을 목표로 하는 영화제의 취지와 맞아 홍보대사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기 여배우 4명과 '배낭여행'

'꽃할배' 후속 프로그램 합류 ·윤여정·김희애 출연 검토

케이블 채널 tvN '꽃보다 할배'(이하 '꽃할배')를 히트시킨 나영석 PD가 새롭게 준비 중인 배낭여행 프로젝트 2탄이 이승기와 톱 여배우 4명의 여행기로 꾸며진다.

tvN 측은 3일 "'꽃할배' 후속으로 11월 '여배우 특집(가제)' 방영을 염두에 두고 기획 중"이라면서 "이승기가 출연을 확정했고, 윤여정·김희애와 출연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송은 KBS2 '해피선데이-1박2일'에서 호흡을 맞춘 나 PD와 이승기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승기의 예능 출연은 지난해 4월 MC 자리에서 하차한 SBS '강심장'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이승기의 출연과 관련해 나 PD는 "이승기와는 복귀작을 함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던 것 같다. 자주 만나서 프로그램 이야기도 많이 했다. 서로를 잘 아는 만큼 즐거운 작업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배우 특집은 이승기가 출연한다는 사실 외엔 확정된 것이 없다. 현재 여배우들을 섭외 중이고, 여행지나 출발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방송 시일이 남아있는 만큼 여유를 가지고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방영 중인 '꽃할배' 대만편은 총 5회로 마무리돼 이달 20일까지 방영된다. '꽃할배'는 여배우 특집이 방송된 이후 내년 1월 새로운 여행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이승기 / 김희애 / 윤여정

tvN 관계자는 "'꽃할배'는 이순재·신구·박근형·백일섭 등 출연진의 다른 일정이 워낙 바빠서 잠시 휴식기를 갖기로 했다"며 "일정에 여유가 생기는 겨울께 재정비해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0427@metroseoul.co.kr

'노는 할배' 이순재·'4차원 재벌녀' 서예지…

시트콤 '감자별' 포스터 공개 의문의 행성 탓 벌어지는 얘기

시트콤의 대가' 김병욱 PD가 새롭게 선보이는 tvN 새 일일시트콤 '감자별 2013QR3'이 포스터 공개와 함께 베일을 벗었다.

이 시트콤은 2013년 어느 날 지구로 날아온 의문의 행성 감자별 때문에 벌어지는 노씨 일가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이번 포스터는 행성의 출현으로 인해 '멘붕'에 빠진 총 15명의 캐릭터를 공개해 각각의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냈다.

극의 중심을 이루는 노씨 집안의 최고령자 노송 역의 이순재는 진지 식재림 여기는 반려견 철민을 품에 안고 멜빵 바지의 멋스러운 옷수영으로 '노는 할배' 이미지를 한껏 드러냈다. 노송의 장남인 노수동 역의 노주현과 그의 아내 왕유정 역의 금보라도 등장했다.

천구백시 콩콩의 대표인 노민혁 역을 맡은 고경표, 가난에도 굴하지 않고 당차게 살아가는 나진아 역의 하연수, 미스터리 청년 홍혜성 역의 여진구, 노수동의 막내딸인 4차원 재벌 소녀 노수영 역의 서예지 등 신예 배우들도 존재감을 뽐냈다.

이외에 부부로 출연하는 김정민과 최송현, 하연수의 엄마 역을 맡은 오영실, 완구회사 콩콩의 이사로 등장하는 김광규, 서예지와 호흡을 맞출 줄리엔 강, 첫 시트콤 연기에 도전하는 장기하 등도 모습을 공개했다.

한편 23일부터 방영될 이 작품은 역대 시트콤 사상 최고액인 총 122억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 PD의 전작 '하이킥 3'의 87억원에 비해 40% 증가한 금액으로, CJ E&M으로부터 회당 1억원 이상의 제작 지원을 받게 된다.

/박지원기자

박지윤·김예림 가을 감성 담은 멜로디

새 앨범 연이어 발표

윤종신의 두 여자 박지윤(왼쪽 사진)과 김예림(오른쪽)이 가을 감성을 담은 새 앨범을 연이어 발표한다.

박지윤과 김예림은 윤종신이 대표 겸 프로듀서로 있는 미스틱89의 소속 가수다. 이들은 빼어난 미모와 음악성, 몽환적인 목소리 등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지닌 여성 솔로 가수로 윤종신이 제작을 맡은 앨범을 통해 어떤 변신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박지윤은 다음달 새 음반 출시에 앞서 3일 윤종신과 듀엣곡 '굿바이'를 발표했다. 이 노래는 윤종신 4집에 수록됐던 곡으로 가을에 어울리는 감성 발라드다. 원곡은 윤종신과 장혜진이 불렀다. 신곡은 윤종신이 매달 출시하는 음반 프로젝트 '월간 윤종신'의 9월호에 실렸다.

박지윤은 지난해 2월 8집 '나무가 되는 꿈'을 발표한 이후 1년8개월 만의 새 앨범을 준비 중이다.

6월 '올라잇'을 타이틀곡으로 한 데뷔 앨범 '어 보이스'로 큰 인기를 얻은 김예림은 9일 두 번째 미니앨범 '허 보이스'를 출시한다.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한 선공개곡 '레인'을 비롯해 '보이스', '어떤 그런', '사랑한다 말해요', 드림즈 슈퍼프 '연애 진심이 중요했던 적 있었니' '어떤 그런' 영어 버전 등 총 7곡이 수록된다.

총괄 프로듀서인 윤종신을 비롯해 이상순·이규호·김광진·고찬용·김창기 등 실력파 뮤지션들이 참여했다. 소속사는 "새 앨범은 김예림의 목소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장르의 노래들로만 채웠다.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을 뿐 아니라 김예림 본인이 직접 가사를 쓰는 등 완성도 높은 앨범이 나왔다"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화신' 생방송 체제 개편

SBS 토크쇼 '화신 -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생방송 체제로 개편한다.

3일 SBS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17일까지 3주 동안 기존 녹화 분량을 내보낸 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매주 생방송으로 방송된다. 제작진은 지난달 27일 '더 화신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선보인 특집 생방송이 좋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생방송을 정규화하기로 결정했다.

제작진은 "특집 생방송 형식을 전면적으로 보완·강화해 고정 생방송으로 진행한다"며 "게스트는 생방송의 묘미를 최고로 살릴 인물로 섭외할 것이며, 내용도 MC들이 생방송에서 자유롭게 떠들 수 있는 장으로 꾸밀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하정우 감독으로 부산영화제 간다

연출작 '롤러코스터' 초청받아… 개막식 사회 강수연·곽부성

대세 배우 하정우가 감독으로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찾는다.

BIFF 조직위원회가 3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영작과 주요 일정을 발표한 가운데 하정우의 감독 데뷔작인 장편영화 '롤러코스터'는 월드 프리미어(세계 첫 상영)로 부산에서 최초 공개된다고 밝혔다.

총 95편의 월드 프리미어에는 배우 박중훈의 감독 데뷔작인 '톱스타', 추상미가 연출한 단편 '영향 아래의 여자', 강동원이 주연한 김지운 감독의 단편 '더 엑스' 등이 포함됐다. 다음달 3~12일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 등 7개 극장 35개 상영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제작 국가 외 첫 상영) 42편을 포함해 총 70개국 301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개막작은 부탄영화 '바라: 축복'이 선정됐다. 영화제 개막작으로 부탄 영화가 상영되기는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바라: 축복'은 부탄의 고승이자 영화감독인 키엔체 노르부 감독의 세 번째 장편영화로 인도 남부지방의 전통춤 바라타나티얌을 매개로 남녀의 사랑과 역경의 삶을 헤쳐나가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영상미와 함께 펼쳐진다.

폐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김동현 감독의 인디영화 '만찬'이다. 혼자 아들을 키우는 이혼녀인 여동생, 대리운전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부산국제영화제 1 0 … 집행위원장과 허남식(왼쪽) 조직위원장이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영화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감독 데뷔작 '롤러코스터'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초청받은 하정우

남동생, 실직한 장남 등의 힘든 가정사를 다룬 영화다.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개막 추천작으로 '바라: 축복'을 보는 순간 다른 작품에 아예 눈길이 가지 않았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이었다. 이 영화를 발굴한 데 대해 자긍심을 가진다"고 했으며 '만찬'에 대해 "연출력이 돋보이는 인디영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안성기와 탕웨이의 글로벌 MC 조합으로 화제를 모은 데 이어 올해 개막식 사회는 강수연과 곽부성이 맡는다. 이날 1차로 공개된 해외 주요 게스트로는 곽부성을 비롯해 와타나베 켄, 마에다 아츠코, 태국의 공주이자 배우인 우본라타나 라자칸야 등이 포함됐다.

/유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장난기 넘치는 신부 이효리 가수 이효리가 … 팬카페인 효리투게더에 기타리스트 이상순과의 웨딩사진을 공개했다. 1일 제주도 별장에서 극비리에 결혼식을 치른 이효리는 "인생의 중요한 날인만큼 가족과 친지들하게 평범한 딸이자 며느리이고 싶었던 마음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결혼 준비로 고생 했지만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이었다"고 결혼식 소감을 밝혔다.

▶ 역시 평범함을 거부하는 트렌드 리더입니다 /박진환기자 …

김윤석 "여진구 사위로 찜했죠"

영화 '화이' 제작보고회

배우 김윤석이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에서 호흡을 맞춘 여진구를 사위로 삼고 싶다고 밝혔다.

김윤석은 3일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완득이'에 출연했던 유아인처럼 처음에는 여진구를 잘 몰랐다"며 "내가 딸이 둘인데 아들보다는 딸이 좋았는데 영화를 하면서 여진구와 친해지니 '아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하니 '여진구를 데려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진구 어머님과도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라이벌이 많았다. 우리 딸 외모는 자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여진구는 김윤석의 칭찬에 "나와 선배님의 딸이 모두 미성년자기

배우 김윤석(왼쪽)과 여진구(오른쪽)가 3일 진행된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언론시사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때문에 어른이 된 뒤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재치 있게 화답했다.

1997년생인 여진구는 그러면서도 이번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노안이라 극장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영화를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려니 떨린다"고 말했다.

'화이'는 5명의 범죄자 아버지를 둔 소년 화이(여진구)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은 범죄 집단의 냉혹한 리더 석태(김윤석)의 운명을 그린 영화로 다음달 개봉된다. /유순호기자

준호, 롤모델 이병헌과의 만남

영화 '협녀'서 호흡맞춰

2PM의 준호(사진)가 마침내 자신의 롤 모델인 이병헌과 한 작품에서 만난다.

준호는 이병헌·전도연이 주연하는 영화 '협녀: 칼의 기억'에 캐스팅됐다. 준호는 평소 가장 존경하는 배우로 이병헌을 꼽아왔고 한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으로 "이병헌 선배님 사랑합니다"라는 돌발 고백(?)을 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협녀: 칼의 기억'은 고려 말 무너져 가는 고려 왕실을 배경으로 여자 검객 설랑(전도연)이 신분을 숨기고 복수를 위해 딸 설희(김고은)를 비밀병기로 키워오다 천출의 신분으로 왕의 자리를 탐하는 덕기(이병헌)와 18년 만에 재회해 복수를 시도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준호는 성공과 야망을 꿈꾸는 젊은 무사로, 우연히 만난 설희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 율을 연기한다.

준호는 연기 데뷔작인 영화 '감시자들'의 흥행 이후 영화 관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왔다.

/유순호기자

뮤즈백 든 유진 "난 캐서린 공주스타일!"

이탈리아 감성패션 브레라 올 가을·겨울 모델로 발탁

이탈리아 감성의 명품 브랜드 브레라(BRERA)가 올 가을 시즌 광고 촬영 화보를 통해 탤런트 유진을 뮤즈로 발탁, 트렌디한 핸드백과 슈즈를 선보였다.

특히 브레라만의 시그니처인 캐서린 공주를 콘셉트로 삼아 한층 더 클래식하면서도 독특한 컬러감과 위트감을 잃지 않는 디자인을 선보여 특별한 화보를 완성했다.

브레라의 가을 신상품을 집 안에서 쉽게 구매할 기회가 마련됐다.

CJ오쇼핑은 6일과 ○일 이틀 동안 브레라의 '뮤즈백'과 슈즈 등을 특집 방송을 진행한다.

심플러운 ... 브레라의 야심작 뮤즈백 ... 게 하는 '민트백'의 ... 후 ○시 ○분부터 ... 이 기다려왔던 유즈백 ... 공개될 예정이다.

"드림니브 감각과 함께 편리한 실용감"도 ... 입소문이나 연속 매진 행렬을 만들어낸 브레라의 슈즈를 ... 6일 오전 9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CJ오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브레라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브레라 거리에 있는 예술 특구에서 영감을 받아 이름 붙인 이탈리아 감성의 잡화 브랜드로 CJ오쇼핑에서 큰 인기를 ... 있다.

CJ오쇼핑의 올 상반기(1~5월) 히트상품을 집계한 결과 브레라 제품은 모두 20위 안에 입성해 3개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수가와 스타일리시한 패션 아이콘이 대구 브레라는 신세계 강남, 신세계 센텀시티, 롯데 미아, 롯데 청량리, 대구백화점 등 여러 백화점 매장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031)724-5141

/편호순기자

가을 뉴욕 달구는 패션 한류 이벤트

패션 한류 등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패션 행사 '컨셉코리아'가 오는 9일 미국 뉴욕에서 8번째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일 대구광역시,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함께 9일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컨셉코리아 S/S 201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2월 시작한 컨셉코리아는 올해 고태용, 박윤수, 이석태, 최복호, 계한희, 김서룡, 김홍범 등 7팀이 참여한다.

뉴욕패션위크 행사의 하나로 진행되는 컨셉코리아는 9일 오후 3시(현지시간) 뉴욕 링컨센터에서 이석태 등 4팀이 참여해 '바람'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KYE(계한희), kimseoryong(김서룡), CRES. E DIM(김홍범) 등 3개 브랜드에는 글로벌 자문단의 브랜드 컨설팅, 현지 편집매장과의 협업, 패션전시회 참여 등이 지원된다.

/편호순기자

스타들 손잡은 '콜라보 패션' 열풍

이승기·정려원 기획하고 김현중·손예진은 디자인 소비자들 반응도 뜨거워

패션업계가 스타일 좋기로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과 손잡고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타들의 인지도에 힘입어 반응도 꽤 좋은 편이다.

캐주얼 브랜드 헤리토리의 모델로 활동 중인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운데 사진)는 헤리토리의 올가을·겨울 상품 기획에 참여했다.

헤리토리의 '이승기 콜라보레이션 라인'은 순수함과 희망을 상징하는 라인그린을 포인트로 청춘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해 '아엘리이저(소리 진폭이나 주파수를 조절하는 음향장치)'를 디자인 모티브로 삼았다.

배우 정려원(왼쪽)도 패션 편집숍 매그앤매그와 함께 자신의 세례명을 담은 '요아나(YOANA)' 라인을 선보였다.

정려원은 직접 바이어로 나서 전 세계 다양한 브랜드 제품 중 자신의 색깔이 짙든 제품을 구입해 요아나 라인을 구성했다. 또한 전국 매그앤매그 매장에 들어설 요아나 팝업스토어의 실내 장식은 물론 화보 촬영까지 기획하는 등 전 과정을 총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맡았다.

가수 김현중은 세계적인 보석 디자이너 저스틴 데이비스와 선글라스 컬렉션 협업을 했다. 직접 모델과 디자인 기획자로 참여하고 제품에 본인의 아이콘을 새겨넣었다.

배우 손예진(오른쪽)도 자신이 모델로 활동 중인 여성복 '샤트렌'의 일부 제품을 디자인하고 드라마에서 직접 착용해 화제를 모았다. 실제로 손예진이 입은 원피스는 방송 직후 매진돼 재생산에 들어가기도 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미처 몰랐던 색깔의 힘!

요즘 주목받는 컬러힐링법·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컬러 활용팁 등 소개

컬러 컬러풀 라이프

문정아/타래

눈을 뜨고 있는 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느끼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색'의 에너지는 몸은 물론 마음까지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최근 색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컬러 테라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파랑색은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린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컬러, 컬러풀 라이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심신을 치유하는 다양한 컬러 힐링법을 소개한다.

미용예술학·심리학·대체의학을 전공하고 문정아의 마음치유센터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색이 우리에게 미치는 에너지는 무궁무진하다"면서 "컬러를 십분 활용하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똑같은 노란색을 놓고도 개나리·병아리 등 사람에 따라 연상하는 것은 천차만별인데, 이때 무엇을 연상했느냐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삶을 건강하게 꾸려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컬러 힐링법부터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의상 코디법·액세서리 활용법까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컬러 활용 팁을 전한다. 이와 함께 컬러에 대한 새로운 시각법, 감정에 따른 컬러, 컬러를 통한 치유, 좋아하는 컬러로 보는 사람의 성향, 나만의 컬러 찾기, 7개 컬러 에너지 등 생소한 컬러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에는 사진과 명상으로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포토 테라피'도 수록돼 있다.

저자는 "색의 에너지는 정신과 육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책 속의 다양한 컬러 힐링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효순기자 hyo@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인문

위험한 충성 게리 윌스/돈화동네

한국인들에게 충성은 '무조건적인 복종' 혹은 '살신성인'이다. 하지만 게리 윌스는 신뢰가 그 근본에 놓여있는 '믿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비티'로 충성을 재정의한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을 넘어 인문적 성찰을 통해 수많은 함의를 가진 충성을 제대로 사유해본다.

자기계발

협상의 힘 초승여진 외 오스/서원칼럼에

원하는 것을 기분 좋게 얻어내는 소통의 기술이 바로 협상의 힘이다. 저자는 직장·가정·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협상의 유형과 과정, 잘못 알려진 협상 상식, 세련된 협상 자세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또 실전 연습 문제를 통해 협상에 앞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남자, 죽기로 결심하다 콘스탄제 뮈플러 외/사공사

지금 남자들이 소리 없이 울고 있다. '남자니까'라는 생각으로 오늘날 남자들은 마음을 옥죄어오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다. 마음에 쌓여 가슴을 짓누르는 생각들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남성들을 위한 심리 치유 메시지. 이제 남성 우울증을 극복해 보자.

난세의 처세술 장쉬안/한문북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때를 '난세'라고 한다. 오랜 역사를 돌이켜보면 난세에서도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죽어 사라졌다. 저자는 중국의 경전을 통해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출세와 생존 경쟁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살아남는 방법과 비결을 제시한다.

코난 도일을 읽는 밤 마이클 더다/을유문화사

셜록 홈즈를 비롯한 코난 도일의 작품 이야기이자 그의 스토리텔링의 모든 기술을 담은 책. 과학소설의 조창기 저술가, 역사소설의 대표적 작가, 매력적인 에세이스트이자 회고록 작가인 이야기꾼 코난 도일의 매혹적인 작품과 그의 진정한 면모를 소개한다.

교육

콩닥콩닥 신명 나는 책놀이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 경남모임/단비

독서의 당위성과 필요성, 부모의 강요만으로는 아이들의 행복한 책 읽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독서를 '놀이'로, 책을 '놀이 도구'로 삼는 법을 알려주는 선생님들과 함께 책놀이 속으로 들어가보자.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책의 진정한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책 속 한컷

'한국대표 아이스케키'의 그때 그 광고 헝겊에 두른 아이스크림 아래 '슬기로운 어머니의 간식 작전'이란 광고 문구가 재치 있다. 1970년 11월 1일자 한 일간지에 실린 부라보콘 광고도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광고한 전략은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역사의 새 이정표가 됐다. 차갑고 달달한 아이스크림만큼 사랑을 듬뿍 받는 디저트가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1920년대부터 아이스크림이 들어와 6·25 전쟁 이후 '아이스케키' 시대를 지나 현재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아이스크림의 지구사'(로라 B. 와이스/휴머니스트) 중

/전효순기자

'노르웨이의 숲' 갈까…'노란집' 문 열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 '노르웨이의 숲'이 원제 그대로 민음사에서 최근 출간됐다.

7월 선보인 하루키의 신작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에 대한 관심으로 새삼 주목받은 '노르웨이의 숲'은 1987년 발표된 후 하루키를 세계적인 작가로 부각시킨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1989년 문학사상사에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출간돼 지금까지 150만 부 넘게 팔렸다. 색채가 없는 …을 번역한 양억관씨가 다시 번역을 맡았다.

앞으로도 문학사상사의 '상실의 시대'와 민음사의 '노르웨이의 숲'은 병행 출간된다. '상실의 시대'가 저작권법이 개정된 1995년 이전에 출간돼 권리가 보장된다.

2011년 작고한 소설가 박완서의 산문집 '노란집'이 나왔다.

'행복하게 사는 법', '전철한 사람과의 소통' 등 산문 40여 편과 비롯해 시골에서 말년을 보내는 노부부를 주인공으로 한 단편소설 '그들만의 시간'을 담았다. 소설은 2001~2002년 열림원에 만든 계간지 '디새집'에 실었던 것들로 산문과 소설 모두 단행본으로 묶여 선보인 적 없는 글들이다.

/전효순기자 hyo@

두산, 한화 대파 '4연승' LG 2.5게임차로 추격

역전승 SK, 4강 불씨 살려

두산 베어스가 4연승의 신바람을 올리며 2위 LG 트윈스를 2.5게임차로 바짝 추격했다.

두산은 3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화와의 경기에서 장단 13안타를 몰아쳐 12-2로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두산은 4위 넥센과의 승차를 2경기차로 벌이며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SK는 LG와의 경기에서 9회초 대타 안지용이 천금같은 2타점 적시타를 날려 4-3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최근 6경기에서 5승1패를 기록한 6위 SK는 4위 넥센에 3.5게임 차로 다가서 가을잔치를 향한 마지막 희망을 불태웠다.

반면 2위 LG는 주전 마무리 봉중근이 근육통으로 인해 삼성을 제치고 단독 1위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목동구장에서는 5위 롯데가 그동안 '천적'으로 군림했던 넥센의 외국인 투수 브랜든 나이트를 무너뜨리며 5-4로 꺾었다.

롯데는 4위 넥센과의 승차를 2.5게임으로 줄이며 4강의 꿈을 이어갔다.

대구구장에서는 KIA가 이범호의 3점홈런에 힘입어 선두 삼성을 5-2로 물리쳤다.

/이국현기자 lkh@metroseoul.co.kr

프로야구 전적 3일

■ 잠실

SK	000	010	102	4
LG	110	000	100	3

■ 목동

롯데	002	020	001	5
넥센	100	000	012	4

■ 대전

두산	150	000	024	12
한화	000	002	000	2

■ 대구

KIA	410	000	000	5
삼성	000	001	010	2

"벌 받는거 아니에요"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3일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소집 훈련에서 독특한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아이티(6일) 크로아티아(10일)와 평가전을 앞둔 대표팀은 이틀째 훈련에서 두 팀으로 나눠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홍명보 감독은 이날 오전 훈련 후 선수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외출을 허용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유순호기자 사진/뉴시스

연이틀 대포…'가을 남자' 추신수

세인트루이스전 19호 홈런 포함 2안타 · 류현진과 7일 '2차 맞대결'

코리안 메이저리거의 빅매치가 또 한 번 성사됐다.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26)이 7일(이하 한국시간) 신시내티 레즈의 추신수(31)와 한 달여 만에 재대결을 벌이게 됐다. 이들은 7월 28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처음 맞붙었고, 추신수의 홈구장인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로 무대를 바꿔 승부를 벌이게 됐다.

류현진은 5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경기에 등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저스 돈 매팅리 감독은 3일 경기가 끝난 뒤 5일 경기에 에딘슨 볼케스를 선발로 내세우고 류현진은 7일 경기에 선발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다저스가 영입한 볼케스는 볼펜 피칭에서 코칭스태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선발로 낙점됐다. 볼케스가 선발 로테이션에

추신수(왼쪽)가 3일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1회 첫 득점을 하고 팀 동료 토드 프레이저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AP 뉴시스

합류하면서 류현진은 투수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콜로라도 홈경기장 쿠어스 필드 등판을 피하게 됐다.

극적으로 성사된 류현진과 추신수의 대결은 최근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고 있는 두 선수의 경쟁으로 관심을 집중시킨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진출 후 1번 타자 중 최다 홈런(19개), 류현진은 올 시즌 신인 최다승(13승)을 기록 중이다.

7월 첫 대결에서는 추신수를 볼넷 1개, 땅볼과 삼진으로 막은 류현진이 7이닝 9탈삼진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되며 판정승을 거뒀다.

그러나 류현진은 추신수의 무서운 타격 상승세를 막아야 한다. 추신수는 지난달 28일 세인트루이스전에서 통산 100호 홈런을 친 것을 시작으로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4경기 멀티히트와 3개의 홈런, 타율 0.4(26타수 12안타)로 절정의 타격감을 보이고 있다.

3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경기에서는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투런 홈런 포함 5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현재 도루 17개로 3년 만의 20홈런-20도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에 맞서는 류현진도 지난달 31일 샌디에이고전 승리로 2연패에서 벗어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 7일 경기에서 3이닝을 추가해 170이닝을 돌파하면 연봉 외에 25만 달러(약 2억7000만원)의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승부욕을 더욱 자극할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sunshl@metroseoul.co.kr

인천아시안게임 주제곡 '온리 원' 티저영상 공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3일 그룹 JYJ가 부른 주제가 '온리 원' 티저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JYJ는 2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로 임명된 후 전 아시아인이 즐길 수 있는 인천아시아드송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적극 참여해왔다. 이날 공개된 티저 영상은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JYJ와 함께 인천아시안게임을 응원하고, 영광의 순간들을 함께 느끼자는 내용을 담았다.

권경상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온리 원'은 아시아인들이 국가와 인종, 언어,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가 된다는 의미다. 인천아시안게임을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작됐다"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Are you married? 가족에 대해 말하기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당신의 조카는 약혼했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은 1990년에 결혼하셨어요.
그들은 자녀들이 있나요?
그들은 지난달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들의 자녀들은 이제 다 컸어요.

→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체크하세요.

Your niece is engaged, isn't she?
My parents got married in nineteen ninety.
Do they have children?
They had a baby last month.
Their children are grown up now.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밑줄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되는 표현을 찾아 말하세요.

A When did your parents get married?
B My parents 결혼하셨어요 in 1990.

정답 got married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They had [a baby / another baby] last month, didn't they?

2 Their children are [grown up / married] now, aren't they?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2

대명사 2

▶ 소유대명사 & 재귀대명사

	소유대명사(~의 것)	재귀대명사(~ 자신)
1인칭	mine — ours	myself — ourselves
2인칭	yours — yours	yourself — yourselves
3인칭	his/hers — theirs	himself/herself/itself — themselves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박수.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t's not hers. It's his.
그건 그녀의 것이 아니에요. 그의 것이에요.
2 I love myself.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해요.
3 Those pants are mine. 그 바지는 제 것이에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Due to its need for ______ repairs, the Pakot 12Z conveyor belt is scheduled to be replaced by a more efficient model.
(A) frequent (B) frequently
(C) frequency (D) frequents

02 You may return for full credit any merchandise with ______ you are not satisfied.
(A) who (B) what
(C) which (D) whose

01 잦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팔로트 12Z 컨베이어 벨트는 더 효율적인 모델로 대체될 예정이다.
해설 빈칸 앞에는 전치사 for, 뒤에는 명사 repairs가 있으므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A) frequent를 쓴다.
어휘 due to ~로 인해 repairs 명 수리 replace 동 대체하다, 교체하다 efficient 형 효율적인
frequent 형 빈번한, 잦은 frequently 부 빈번하게 frequency 명 빈도
정답 (A) frequent

02 귀하가 만족하지 못하는 물건은 어떤 것이라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동사 may return과 are not satisfied를 연결하는 접속사이면서 전치사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자리이다. 선행사가 사물(merchandise)이므로 (C) which를 쓴다.
어휘 full credit 전액 환불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정답 (C) which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3. 듣고, 질문에 답하기

How 의문문

How do/does ~로 물으면 수단이나 방법을 묻는 의문문이 되지만,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many/much (얼마나 많이), How long (얼마나 오래) 등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Q How often do you clean your house or apartment?
A I clean my house once a week.
twice a week.
every two days.

Q How many times do you eat out?
A I eat out almost every day.
once or twice a week.
more than three times a week.

Q How do you go to school (or work)?
A I go to school by bus.
by subway.
by car.